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3 차 정치국 확대 회의의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3 차 정치국 확대 회의가 9월 2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김정은원수님께서 회의를 사회하시었다.

정치국 확대 회의는 당의 국토관리정책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한 문제, 세계적인 보건위기가 날로 악화되고있는데 맞게 방역대책들을 더욱 빈틈없이 세울데 대한 문제,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일데 대한 문제, 올해 농사결속을 잘할데 대한 문제들을 주요하게 연구협의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먼저 전국적인 국토관리실태를 상세히 분석총화하시고도, 시, 군들의 역할을 높여 국토관리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밝히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국토환경보호사업은 우리 당이 해방직후부터 일관하게 강조하고있고 최근년간 더욱 중요하게 추진하고있는 정책과제이라고 하시면서 산과 강하천이 많고 해안선이 긴 우리 나라에서는 국토관리이자 경제건설이고 인민들의 생명안전과 국가발전의 필수조건으로 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모든 시, 군들에서 자체의 힘으로 국토관리사업을 강력히 추진하여 자기 지역을 그 어떤 자연재

해에도 끄떡없게, 안전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번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 회의의 핵심사상이라고 언명하시었다.

도, 시, 군당조직들과 정권기관들은 현 시기 국토관리사업의 중요성과 절박성, 당중앙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당의 국토관리정책실현에 총발동되어야 한다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도, 시, 군당 조직들과 정권기관들에서 국토관리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앞으로의 현실적인 대책과 실행계획을 정확히 수립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최근년간 위험도수가 더욱 높아지고있는 이상기후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하며 적어도 5개년계획 기간에 강하천정리와 사방야계공사, 제방 보수와 해안방조제공사를 기본적으로 결속하고 정상관리에 들어갈수 있도록 계획을 통이 크게 적극적으로 세워야 한다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음으로 세계적인 보건위기가 날로 악화되는데 맞게 국가적인 방역대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었다.

지금 세계적인 대유행전염병사태가 억제되지 않고 계속 확산되는 위험한 형세는 국가적인 방역대책을 더욱 강화해 실

시할것을 요구한다고 하시면서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국가방역체계와 이 부분의 사업을 재점검하며 방역전선을 다시 한번 긴장시키고 각성시키기 위한 일대 정치공세, 집중공세를 벌일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방역사업에서 전체 인민의 사상의적 단합과 고도의 자각적일치성을 보장하는 방법에 더욱더 튼튼히 의거하며 일군들이 자기 지역과 단위의 방역안전을 당과 국가앞에 전적으로 담보하겠다는 철저한 각오와 높은 책임성을 견지할데 대하여 언급하시었다.

방역강화에 필요한 물질기술적수단을 충분히 갖추며 방역부문일군들의 전문가적자질과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서와 우리 식의 방역체계를 더욱 완성할데 대하여 지적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음으로 경공업부문에서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일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경공업부문 일군들이 올해 계획을 완수하기 위한 사업을 주동성과 예견성을 가지고 박력있게 조직집행하여 실속있는 결과로써 자신들의 당성과 인민성을 검증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소비품생

을 결정적으로 늘이는데서 경공업공장에 필요한 원료와 자체보장대책을 선행시킬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이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우리 경제의 사명은 인민들의 물질적 수요를 보장하는데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기간공업을 비롯한 모든 부문에서 인민소비품생산에 소요되는 물자들을 우선 보장하는 규율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언급하시었다.

인민소비품의 질을 높이는것은 생산을 늘이는것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을 높이고 생산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제고하며 품질감독사업을 강화하여 질 좋은 제품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회의에서 올해 농사결속을 잘하여 계획한 알곡생산목표를 반드시 점령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올해 농업부문에서 전당, 전국, 전민의 강력한 지원밑에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불리한 이상기후현상을 이겨내며 알곡생산을 위한 줄기찬 투쟁을 벌여온데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당면하여 가을걷이전까지 알곡수확고를 최대한 높이는데 힘을 집중할데 대하여 언급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농업부문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한사람같이 렬기시키는것과 함께 전사회적으로 농촌지원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정치선전과 경제선전을 힘있게 전개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을걷이와 탈곡에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하기 위한 조직사업과 지휘를 빈틈없이 하며 국가적으로 필요한 영농물자와 자체, 설비를 책임적으로 보장하고 량곡수송과 가공, 공급사업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올해 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고 인민들의 식량문제해결에서 돌파구를 열기 위한 당중앙위원회적인 조치를 취할데 대하여 지시하시었다.

회의에서는 해당한 결정들이 채택되었다.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는 다음으로 조직문제가 취급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회의를 결속 하시면서 중앙과 지방의 모든 일군들이 당과 혁명, 인민앞에 지닌 무거운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당의 결정과 지시집행에서 불굴의 정신력과 투신력, 완강한 실천력을 발휘해나갈데 대하여 재삼 강조하시었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청년절경축행사참가자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고 어렵고 힘든 부문에 탄원진출한 청년들을 만나주시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청년절경축행사참가자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도착하시자 청년전위들이 러치는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당의 뜻을 받드는 하나의 꿈과 이상을 안고 사회주의 건설의 전진선들에 남먼저 달려가 총성과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미더운 청년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인사를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의 부름앞에 무한히 충실하며 미래를 위해 투신

하는것을 인생의 더없는 영예로, 자랑으로 여기는 우리 청년들의 사상정신상태는 매우 훌륭하다고 하시면서 전세대들이 창조한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을 굳건히 이어가는데 애국청년들을 높이 평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참가자들이 조선로동당의 믿음직한 청년전위라는 고귀한 부름을 인생의 가장 큰 재부로 간직하고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의 밝은 미래를 앞당기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조국과 인민이 자랑하는 영웅청년으로 이름떨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끝없는 감격에

넘쳐 목청껏 환호하는 청년들에게 오래도록 손저어주시며 전투적인사를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8월 30일 사회주의건설의 어렵고 힘든 부문에 탄원진출하여 인생의 새 출발을 한 청년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밝은 앞날을 축복해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투쟁하는 보람찬 시대의 전위에서 청춘을 빛내일 비상한 각오와 열정을 안고 어렵고 힘든 부문에 탄원진출한 청년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면서 그들의 소행과 정신세계를 높이 평가해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뒤떨어졌던 청년들이 자기들을 풀어주고 키워준

어머니당과 사회주의제도의 고마움을 깨닫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제일 어렵고 힘든 초소에서 인생의 새 출발을 한것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대견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혁명의 새로운 승리를 안아오기 위한 간고한 투쟁을 이어나가고있는 시대에 이룰처럼 당과 혁명의 부름에 충실한 청년들이 수많이 배출되고있는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 우월성의 표출이며 우리 청년들의 고상한 인생관, 미래관의 발현이라고 하시면서 혁명하는 당에 있어서 자기의 믿음직한 교대자, 후비대, 절도양양한 젊은 주력부대를 가지고있는것은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제일가는 자랑이고 밀천이며

재부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오늘의 장엄한 총진군길에서 우리 청년집단이 그 어디거나 투쟁의 불씨가 되고 료원의 불길이 되여야 한다고, 보석같은 애국의 마음을 안고 조국의 부흥과 진보를 위하여 분투하는 청년영웅이 되여야 한다고 간곡히 이르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사회주의에 대한 억센 신념을 간직하고 당의 부름에 실천으로 화답해나선 미더운 청년들의 밝은 앞날을 축복해주시면서 무한한 감격과 환희에 넘쳐있는 그들을 사랑의 환포에 안으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본사기자





시론 《미국은 땅이 무서운 나라》

남조선에서 8.15조국해방의 날을 맞아 반전, 평화활동을 벌인 민주로총 중앙동일선봉대의 구호는 《미국없는 자유의 시대, 우리 힘으로》였다. 매일같이 진행된 강연 및 토론회, 거기에 반영된 제복중에도 《미국없는 내 고향》이 있었다. 민심의 반영이고 시대의 절규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하다면 남조선에서 《미국없는》, 《미국없는》 날이 과연 언제 있었단가. 추억의 류수를 거슬러오르면 1945년 9월 8일이 눈에 밝힌다. 미국이 남조선을 강점한 불미스러운 날이다. 남조선에서 일제식민지통치의 사슬이 미국식 민지노예의 땅으로 바꾸어진 날이다. 일제시기 초대조선총독으로 이 땅에 기여된 데라우씨는 《조선사람은 일본법률에 복종하던가 아니면 죽어야 한다.》라고 뇌까렸다. 해방된 남조선 땅에 뿌려버린 맥아더의 포고는 《분단 및 분란의 권한하에 발포된 일체의 명령에 즉각 복종해야 한다. 점령군에 반항하는자에 대해서는 가장없이 엄벌에 처한다.》는 폭언이었다. 《해방자》, 《우방》으로 여기었던 미국, 미군은 이렇게 일제의 조선총독부와 총독정치를 그대로 계승한 중주국, 점령군이였다. 그래서 남조선인민들은 말한다. 이 땅에서 해방은 8.15부터 9월 8일까지 불과 20여일이였다. 미군이 남조선에 침략의 군화발을 찍은 그날부터 조선반도의 절반방 남녘에서는 일제의 식민지통치에 못지 않게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박해와 탄압, 정의와 진리, 민주와 통일에 대한 피비린 살륙이 끊임없이 이어지며 오늘에 이르렀다. 종일에서 종미로 변신한 남조선의 친일세력은 《제3》작대신 미군화좌에 매달려 친미사대를 비루한 생의 명줄로 여기며 동족매국과 민족분열에 기생, 번식해왔다. 자주권부재의 치욕을 《동맹》, 《혈맹》으로 미화하고 사대굴종의 노예살이를 《세계화》, 《신진화》로 분식하면서 친미, 친일의 바탕을 이어가는 쓸개박진자들때문에 남조선인민들이 겪는 고통과 불행의 굵고 세기를 이어 갔어지고 있다. 《미국없는 시대》, 《미국없는 땅》은 결코 구호나 꿈으로만 끝나서는 안되기에 남조선인민들은 반미, 반전, 평화수호를 위한 투쟁에 떨쳐 나서 힘차게 뛰쳐나. 《미국없는 자유의 시대, 우리 손으로》 정 필



《COVID-19》와 함께 확산되는 사회적불안과 혼란

최근 남조선에서 악성전염병 4차대유행의 장기화로 사회적불안과 공포가 날을 따라 짙어지고 있다고 한다. 악성비루스의 급속한 전파는 남조선의 각 분야를 흔들고 있지만 특히 경제에 주는 타격이 크다고 한다. 얼마전 남조선의 《한국은행》은 현 경제실태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그에 따르면 현재 남조선의 금융시장과 경제전반의 부정적경향지수는 58.9로서 2019년 금융위기때의 41.9보다 훨씬 높아졌으며 2008년 세계금융위기수준인 60에 거의 도달하였다고 한다. 또한 지난 4년간 주택가격은 약 2배, 주식가격은 1.7배 상승하고 2021년 상반기 자영업자들에 대한 은행대출규

모도 1년전에 비해 19%나 증가한다. 가계부채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들중 가장 높다고 한다. 보고서는 2021년 상반기 4개월이상 일자리를 얻지 못한 장기실업자는 2020년 같은 시기에 비해 26.4%나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실업이 구조화되어 높은 실업률이 고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현상은 빈곤층을 증대시키고 사회양극화현상을 심화시켜 사회적불안을 고조시키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한편 7월초부터 본격화된 악성전염병의 4차대유행으로 민생이 더욱 위기에 처하고 그 에 따른 민심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고 한다. 남조선의 《연합뉴스》를 비롯한 여러 언론들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은행대출규

남조선에서 다음이 《대통령》갑부를 노린 권력야망자들이 오뉴월 구멍이 뚫렸다고 정치권은 늑머리야시장 같이 벌석인다. 덩치가 큰 야당의 인물들은 물론이고 군소정당, 무소속 등에서 수십명의 사람들이 저저마다 《대선》경쟁에 뛰어들어 민심의 이목을 끌기 위한 싸우려 《공약》을 팔기에 여념이 없다고 한다. 온갖 어중이떠중이들이 《대통령》자리를 노리고 북

남조선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민생의 맥을 짚어 보고자 한다. 그러나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은 민심의 마음을 다독일 정책이나 방략이 아니라 민심이 되어 돌아치는 이리 시정배들때문에 남조선에서 민생이 녹아나고 사회가 갈수록 썩어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바다물이 짠것을 알려면 한모금이면 족하다고 한다. 《대선》후보로 자처하며 쏟아져나온 인물들과 그들의 진솔함을 보고서도 남조선정국은 말그대로 시정배들의 란무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주 광 일

《동석불관장판국회》

남조선 《국회》에 따라다니는 오명이다. 의원들이 놀고먹으면 《식물국회》, 야당의 의원들끼리 싸움만 하면 《동물국회》, 《란장판국회》, 무더기로 《법안》이 통과되면 《날치국회》... 대체로 보수 세력에 의해 그런 오명이 생겨나곤 했다. 그런데 인차 그 오명들이 재현될판이라고 한다. 보수야당이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주요법안들의 《국회》통과를 필사적으로 막겠다고 하기에 말이다.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개정안》, 《탄소중립법》, 《국회법》, 《교육기본법》 등에 대해 《국민의힘》은 《악법》이라고 고야대면서 《무제한 토론》과 《국회보이코드》 등 은 힘

구걸질해야 받을것은 배척뿐

남조선에서 《국민의힘》의 《대선》에비후보인 윤석열이 20, 30대 청년세대로부터 팬데를 받고있다고 한다. 남조선언론인 《파이낸셜뉴스》는 《윤석열 2030에서 싸늘한 편진단》이라는 제목으로 이에 대해 상세히 전하였다. 《파이낸셜뉴스》는 윤석열이 《민지야 부탁해》라는 깜빠니아를 벌여놓고 청년세대와의 《소통》에 나섰다. 정작 20, 30대의 반응은 싸늘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윤석열은 인터넷에서 MZ세대(1981년부터 2004년까지 출생한 17살부터 40살까지 청장년층)의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수상을 함께 모색한다는 취지로 해당 캄빠니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윤석열은 해당 게시글과

현대판노예집단 - 남조선군의 부패상을 폭로한다

남조선군부가 2014년부터 군내에서 구라와 가혹행위, 인권유린행위를 근절하고 새로운 병영문화를 세워 《신진군대》의 면모를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많은 대책들을 내놓기도 하였다. 하지만 미국식병영문화와 인건증소사상으로 길들여지고 부패와 타락, 염전사상이 만연한 강제집단, 오합지졸의 무리들 《신진화》해보려는것은 구름을 손으로 잡아보려는 어리석은 망상에 불과하다. 염전, 염군에 질식된 무뎡한 집단 남조선군 사병들속에서는 전쟁은 당국이나 국방부가 알아서 할 일이고 자기들은 목숨이나 부지하다 무사히 집으로 가면 된다고 하면서 군복무를 태평하는 현상이로 끝적으로 나타나고있다. 그런 속에 군사분계선과 해안경비선이 뚫리고 민간인

병들의 손전화기사용이 허용되면서 사병들이 부실급식, 상급의 학대행위 등을 수시로 인터넷에 공개하고 각종 신소설 하여 장교들은 사병들의 눈치를 보는 정도라고 한다. 결과 2015년에 63건이었던 명령부복종행위 2020년에는 거의 4배로 증가한 242건에 이를었다는 것이다. 남조선언론들과 전문가들은 군내반에 하던연연, 연금사상으로 하여 군내부의 기강이현상이 우습게되고 군물이 상실된 완전한 무용지대로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민권유린의 서식지, 부패전시장



인간성과 포악성을 기질로 하는 미국식병영문화, 강대문화가 판을 치는 남조선군내에서 사병들에 대한 인권보장은 신기루와 같은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살인적인 기함과 구라, 욕설과 폭행으로 하여 남조선군내의 반인권적인 실태는 말그대로 지옥에 비길 수 있다. 올해에만도 해군장교들이 술에 만취되어 사병들을 집단적으로 구타한 사건, 해병대 1사단에서 대대장이 사병을 목욕관찰에 세워놓고 사견관련을 한 사건을 비롯하여 각종 가혹행위들이 수없이 나타나고 있다. 해병대 1사단에서도 선임사병들이 후진사병을 장기간 괴롭히는 사건이 폭로되어 《해병대는 해체를 각오한 개혁을 진행하라》는 비난을 받았다고 한다. 어찌 그뿐이겠는가. 온갖 때론과 악덕, 폭력이란 무하는 속에 남조선군내에서 너성군외고의 인권도 무참히 유린되고있다고 한다. 지난 5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남성부사관이 상급의 성추행에 대해 고발하였다가 목상당하자 정신요양을 받게 된 사건이 발생하여

성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라

범위에 대해 반성하고 새 출발의 마음을 다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와는 정반대로 일본군주주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야스쿠니신전에 공물을 보내고 방위사관을 비롯한 정권자들이 참배하다못해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군국주의의 역사관과 반공화국적대의를 주입시키는 《방위백서》까지 빠졌이 발간한 것을 보면 일본의 역사적식과 제침야망이도가 어느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를 잘 알 수 있게 된다. 두말할것도 없이 이것은 엄청난 타격을 대한 부정이고 침략사상을 되풀이하겠다는 군국주의의 재침야망의 발로인 것이다. 괴로 발로된 저들의 과거범위에 대해 사죄와 배상은 고사하고 인정을조차 하지 않는 침범편향 나라. 다른 나라와 민족을 타고났으면는 침략적군성을 조종도 버리지 않은 나라가 바로 일본이다. 일본의 이러한 책동이 다른 나라와 민족에게 해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침략의 역사를 되풀이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가만히 앉아 지켜보고만 있을 우리 민족이 아니다. 남조선 각계에서 《스가가 과거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사죄와 반성을 외면하였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민족의 고유한 영토로서 일본의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다.》, 《일본의 재침야망이도에 각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울려나오고있는것은 두렵지 않은 실재로 된다. 우리에게는 날로 우습해지는 일본의 군국주의부활행동에 단호하게 대처해나갈것이다. 김 승 미

# 어머니조국의 품에 안겨 21년, 꿈같은 행복의 나날이었다



기자: 비전향장기수들이 공화국의 품에 삶의 닳을 내린 때로부터 어느덧 2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뜻깊은 이날을 맞아 어머니조국의 품에 안겨온 류다르리라고 본다.  
김동기: 정말 감회가 새롭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그 세월이 두 번이나 지나지 않았는지 아직도 그때가 어제일처럼 느껴진다. 지금도 나의 눈앞에는 2000년 9월 2일 판문점분리선을 넘어 그때가 생생하다. 지옥행이 락원행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전장이나 역에서 생사기호에 처한 운명을 구원해준 은인에 대한 이야기가 무수하지만 우리 조국에서처럼 수십 년 세월 절고도 도와도 같은 사지에서 헤매이는 자기의 아들들을 해미는 잊지 않고 구원의 손길로 보살피고

끝 끝내 한두사람도 아닌 60여명을 한나한시에 맞아들인 것과 같은례를 알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모두는 21년전 조국의 품에 안기던 그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만세!》를 소리높이 웨치고 있었다.  
얼마나 밝고싶었던 내 조국 땅. 얼마나 안기고싶었던 조국의 품이었는데. 이런 크나큰 감격속에 어머니조국의 품에 안겨 우리들을 거리마다에 펼쳐나서 열렬히 환영 해주던 인민들의 모습과 뜨거운 애정을 목격했으니 지금도 잊을수 없다.  
최선목: 세월이 너무도 빨리 흘러가는것만 같다. 행복 속에 세월의 흐름을 잊은것 같다.  
남조선에서 감옥살이할 때에는 살아서 조국으로 돌아갈 날이 있을지 하고 생각했었는데 정말 오메에도 그리던



비전향장기수 김동기, 비전향장기수 리재룡, 비전향장기수 최선목

위대한 장군님의 품. 은혜로운 조국의 품에 안겨게 되었으니 꼭 꿈을 꾸는것만 같았다.  
나는 고향이 남조선 강화도이지만 진정한 나의 조국은 공화국이라는 신념을 안고 그 어떤 동이나 망설임도 없이 북행길을 택하였다. 나의 이 마음을 잘 알고있기에 남조선에 있는 가족, 친척들

도 21년전 그날 판문점까지 따라나와 공화국의 품에 안겨게 나의 진심으로 축복해주었다.  
기자: 꿈에도 그리던 조국의 품에 안겨 보낸 지난 세월은 어떤 나날들이었는지?  
김동기: 말이 나왔으니 말이 지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안겨 우리들이 받아안은 뜨거운 사랑과 믿음을 새길수록 눈곱이 뜨거워지고 우리는 행복을 생각할수록 솟구치는 격정을 감할수 없다.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에게 새 삶을 안겨주시고 온 나라가 다 아는 축복받은 인생으로 빛내여주시려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입니다.  
아버지수령님의 혁명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길을 신념과 의지로 빛내인 비전향장기수들을 모두 금방석에 앉히고싶다고, 우리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하신 그이의 크나큰 관심과 세심한 보살핌속에서 우리들은 공화국영웅으로

로, 조국통일상수상자로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비전향장기수들모두가 공화국의 품에서 여생을 행복하게 보내도록 크나큰 은정을 거두어주시고 배려해주셨다. 그 사랑속에 어제날 한평도 안되는 줄이없는 먹방에서 안 우리들이 현대적인 고급살림 집은 물론 계절에 따르는 옷과 생활필수품에 이르기까지 일식으로 받아안았다.  
리재룡: 남쪽의 감옥에서 《눈은 총각》으로 불리우던 나도 위대한 장군님의 품에 안겨서야 새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 그이께서는 푸른 수의차림으로 피인취음을 당하던 저를 비롯한 여러명의 비전향장기수들에게 결혼식상까지 보내주시었다.  
꿈같은 자식복의 기쁨을 억제할수가 없어 무뎠던 딸애의 이름을 지어주시였으면 하는 소원을 담은 저의 편지를 보여주신 그날 밤이 따로없이 그 바쁘신 속에서도 온 나라 인민들의 축하

과 경성과 시중호를 비롯한 경치좋은 곳에서 마음껏 휴식하도록 조치도 취해주셨다.  
어제날 《인간계기품》으로 불리우던 우리들이 오늘은 로당익장하여 장수를 누리려고 있다.  
김동기: 비전향장기수들에게 안겨주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은 오늘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얼마전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진행된 제7차 전국로병대회에 참가하는 영광을 지니게 되었다. 그때 나는 주석단에서 경애하는 그이의 영상을 부르면서 마치도 위대한 장군님을 비움은것만 같아져도 모르게 목청껏 만세를 불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들을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돐 경축행사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비롯하

여 당과 국가의 대회들에 불려주시었고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었다.  
로 양덕은천문화휴양지에서 즐거운 휴양의 나날을 보내도록 해주셨고 해마다 갖가지 보약을 비롯한 선물을 우리모두에게 안겨주신다.  
최선목: 세월이 흘러도 식지 않고 더욱 뜨거워만지는 절세위인들의 사랑속에서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은 진정한 삶과 행복을 누리가고 있다.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우리들은 시와 도서도 쓰고 서예작품들도 창작하고 있다.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랑을 언제나 잊지 않고 고마운 어머니조국과 민족의 통일을 위해 여생을 다 바치려가겠다.  
기자: 좋은 이야기를 들려 주어 감사하다.



해마다동포들이 어머니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안고 출저 울곤 하는 서정시 《나의 조국》, 그 시를 창작한 시인은 나의 아버지 김상오이다.  
1917년 7월 황해남도 해주에서 출생한 나의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조국의 귀환을 배에 사무치게 체험하였다.  
일찌기 문학의 길에 들어선 식민지청년이었다 아버지님의 가슴속에서는 매없이 조국이란 무엇인가 하는 웨침이 솟구치곤 하였다고 한다. 애절한 시인이 바라본 조국은 빛이 없는 암흑의 세상이었다.  
아버지가 그토록 찾고 있던 《조국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겨서야 비로소 찾을수 있었다.  
주체34(1945)년 12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5도신문주필일군협의회를 지도해주셨는데 그 자리에 당시 신문 《자유황해》 주필이었던 나의 아버지도 있었다.  
솟구치는 격정을 억제할수 없었던 아버지는 그이앞으로 다가가 장군님을 만나뵈은 기념으로 장군님의 수표를 받고싶다고 말씀하셨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머니의 수첩에 《김일성》이라고 활달한 필체로 태양의 존함을 새겨주시었다.  
그이의 출중한 인품에 완전히 매혹된 아버지는 그 격정과 기쁨을 담아 시 《광장》을 창작하였다.  
아버지의 창작주제는 언제나 조국이었다.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 조국을 빼앗아려는 원수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 이 감정이 아버지의 작품들마다에 맥박쳤다. 전쟁시기에도 아버지는 시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총을 놓지 않을것이다》, 《증오의 불길

로써》, 서정시 《조국의 기발아래》를 연속 창작하였다. 전후의 재더미를 헤치며 복구건설의 기적을 창조하고 천리마의 나래를 펴 온 세상을 놀래우던 때 아버지는 시 《평양이며, 축복하노라》, 가사 《황금나무 능금나무 산에 심었소》, 가사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 등을 창작하였다.  
그후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모해책동으로 하여 시

말로 아버지수령님의 품, 위대한 장군님의 품이로구나. 그 품 떠나 나는 못살아. 아버지의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치는 뜨거운 격정은 풍만한 서정을 불러일으키며 시적인 령감으로 분출되기 시작하였다.  
서정시 《나의 조국》은 생의 활력을 주시고 청춘의 삶을 되찾아주시는 위대한 은인들께 드리는 아버지의 순결한 마음의 송가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아버지께서 창작한 이 시를 몸소 읽으시고 서정시에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뜨거운 흠모의 정이 구체적인 생활감정을 통하여 뜨겁게 흘러넘치고있다고 분에 넘치는 평가를 주시었다.  
아버지는 김일성장군님께서 조국통일상수상자이다. 통일된 조국! 아버지에게 있어서 그것은 삶의 희망이었고 문학적창작의 주요주제였다. 장편소설 《통일이 언제 될지니》, 장시 《서울이여 나는 너를 부른다》, 정론시 《남녘 땅의 청년학생들에게》, 장편소설 《교수의 증언》 등 아버지가 쓴 조국통일주제의 작품들은 100여편이나 된다. 아버지가 우리곁을 떠나지도 오랜 세월이 흘렀다.  
오늘 우리 조국은 존엄하고 강대한 나라로 세계에 빛을 뿌리고있다. 조국에 대한 인민의 사랑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히 불타고있으며 우리의 증지는 하늘에 닿고있다.  
때로 나는 이런 생각을 하여본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더라면 오늘의 조국의 모습을 볼고 어떤 시를 남겼을까 하고.

알지 못해라 언제부터 나의 가슴에 깃들었는지 아마도 그것은 나의 첫 삶과 함께 이미 조용히 자리잡은것이며 언제나 나의 심장에 가득차있어 기쁨과 아픔 그 모든 운명을 함께 사는것 조국이며! 너는 무엇이기에 가만히 네 이름 부르면 가슴은 터질듯 궁지로 부풀고 눈곱은 찌릿이 젖어드는것이나 어찌하여 때로 이국의 거리를 거닐 다가도 문득 솟구치는 그리움에 마음은 한달음에 달려와 너를 안는것이나 조국은 고향마을 정든 집이라더라 동구밖 오리나무숲 그 정겨운 설레임 새벽녘 들가에 피는 너인들의 웃음소리 송아지떼 풀을 뜯는 언덕을 넘어 지졸대며 흐르는 어울물소리 조국은 그리운 얼굴들이라더라 다심하신 고향어머니 모래밭에 딩굴던 어릴적 동무 물결치는 이랑속에 버단을 안고 맑을 씻는 처녀의 그윽한 눈길... 지난날 네 그리 가난하고 억울러 슬픔과 고통만을 줄 때에도

서정시 나의 조국 김상오

너의 운명도 내 가슴이 아팠고 살길 찾아 너를 떠나면서도 눈물속에 돌아보고 또 돌아보았거니 조국이며!

너는 무엇이기에 가만히 네 이름 부르면 가슴은 터질듯 궁지로 부풀고 눈곱은 찌릿이 젖어드는것이나 어찌하여 때로 이국의 거리를 거닐 다가도 문득 솟구치는 그리움에 마음은 한달음에 달려와 너를 안는것이나 조국은 고향마을 정든 집이라더라 동구밖 오리나무숲 그 정겨운 설레임 새벽녘 들가에 피는 너인들의 웃음소리 송아지떼 풀을 뜯는 언덕을 넘어 지졸대며 흐르는 어울물소리 조국은 그리운 얼굴들이라더라 다심하신 고향어머니 모래밭에 딩굴던 어릴적 동무 물결치는 이랑속에 버단을 안고 맑을 씻는 처녀의 그윽한 눈길... 지난날 네 그리 가난하고 억울러 슬픔과 고통만을 줄 때에도

너의 운명도 내 가슴이 아팠고 살길 찾아 너를 떠나면서도 눈물속에 돌아보고 또 돌아보았거니 조국이며!

너는 무엇이기에 가만히 네 이름 부르면 가슴은 터질듯 궁지로 부풀고 눈곱은 찌릿이 젖어드는것이나 어찌하여 때로 이국의 거리를 거닐 다가도 문득 솟구치는 그리움에 마음은 한달음에 달려와 너를 안는것이나 조국은 고향마을 정든 집이라더라 동구밖 오리나무숲 그 정겨운 설레임 새벽녘 들가에 피는 너인들의 웃음소리 송아지떼 풀을 뜯는 언덕을 넘어 지졸대며 흐르는 어울물소리 조국은 그리운 얼굴들이라더라 다심하신 고향어머니 모래밭에 딩굴던 어릴적 동무 물결치는 이랑속에 버단을 안고 맑을 씻는 처녀의 그윽한 눈길... 지난날 네 그리 가난하고 억울러 슬픔과 고통만을 줄 때에도

너의 운명도 내 가슴이 아팠고 살길 찾아 너를 떠나면서도 눈물속에 돌아보고 또 돌아보았거니 조국이며!

너는 무엇이기에 가만히 네 이름 부르면 가슴은 터질듯 궁지로 부풀고 눈곱은 찌릿이 젖어드는것이나 어찌하여 때로 이국의 거리를 거닐 다가도 문득 솟구치는 그리움에 마음은 한달음에 달려와 너를 안는것이나 조국은 고향마을 정든 집이라더라 동구밖 오리나무숲 그 정겨운 설레임 새벽녘 들가에 피는 너인들의 웃음소리 송아지떼 풀을 뜯는 언덕을 넘어 지졸대며 흐르는 어울물소리 조국은 그리운 얼굴들이라더라 다심하신 고향어머니 모래밭에 딩굴던 어릴적 동무 물결치는 이랑속에 버단을 안고 맑을 씻는 처녀의 그윽한 눈길... 지난날 네 그리 가난하고 억울러 슬픔과 고통만을 줄 때에도

## 통일선영할 조국을 그리며

김명진 (김상오의 아들)

